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대구광역시 달서구갑	
후보자명	홍지만	기호		소속정당명	새누리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실업률 감소 및 대기업 유치				
<p>[정책목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역 공기업 쿼터제 도입 추진으로 대구 인재의 타지방 유출 감소- 지역민 우선 고용원칙 실시로 인한 실업률 감소 효과 기대 <p>[정책방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대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구지역 공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 <p>대구의 공기업 채용 시 대구 지역에서 졸업한 대졸자들에 대한 우대를 통해 대구 지역 대학 엘리트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, 이렇게 되면 대구의 인재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지난 10년 동안 무려 4만 여 명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 대구를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는데,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젊은 층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자리에 달서구 거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원칙을 만들어 달서구의 고용 촉발을 유도 <p>달서구의 관내 기업체가 거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,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하고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서구 지역의 은퇴자들이 경력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한다. 또 청년 할당채용제를 실시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</p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우리도 맑은 물 좀 마시자!				
<p>[정책목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대구 상수도 취수원 상류 이전- 취수원 이전을 통한 대구 시민의 식수의 질 향상 <p>[정책방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구미 공단의 폐수가 합류돼 대구 시민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					

각종 사고도 이어져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한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

현재 3백 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문제는 검사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유해물질이나 신종 물질이 1천여가지 넘는다는 것이다. 2011년 초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구미 일선교, 성주대교 등 3곳의 원수검사 결과 비스페놀A와 내분비교란물질, 1,2디클로로프로판이 검출(지금까지 항목 없던 것)된 것으로 보아 취수원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. 7개 시군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, 사업비는 5천4백여 억 원 추산된다.

- 취수원 이전을 통한 대구 시민의 식수의 질 향상

현재 대구를 포함한 고령, 성주, 칠곡, 구미, 김천, 상주 등 7개 시군의 취수원은 구미시의 하류에 위치해 있어 공단 지역의 공업용수의 유입이 우려되며 취수원 이전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.
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대구시청을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정책목표]

- 시청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부동산 활성화 기대
- 자녀교육을 위한 우수 초·중·고 유입효과 기대
- 성서 주민들의 편의성 증가
- 시청 인근 성서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대

[정책방향]

- 타 광역시의 1/4 수준의 좁은 청사를 대구시 소유지인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해 타 지역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타당성 제시

정수장이 폐지된 상태라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 비용이 들지 않아 건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. 또한 현 경북도청 자리로 이전할 경우 5천억원, 현 위치에 증·개축할 경우 3천억원이 들지만,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할 경우 천억 원 정도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(달서구의회 연구용역 결과) 가장 경제성이 높다. 이로 인한 대구시의 이미지 상승효과 및 달서구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.

달구벌대로상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산재해 있는 대구시청 산하 10여개 사업소, 기관 등을 집결시킬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.
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
<p>[정책목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금 분할 납부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 - 학자금 대출(ICL)의 취업 후 상환제도 입법 추진으로 학자금 상환 불가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 최소화 <p>[정책방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금 12개월 분할 납부제 실시 <p>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한국 주요 사립대에 비해 3배 이상 비싸지만 12개월 분납 가능하며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면제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. 현재 대학 등록금은 분할 납부가 2~3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전국의 156개 대학은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아,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및 등록금 분할 납부를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 시킨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자금 대출(ICL) 무이자 및 취업 후 대출금 상환제도 입법 추진 <p>현재 총 학자금 대출금 규모는 3조원이며 ICL의 이자율이 3.9%로 매우 높다. 국회 교과위에서 증액한 4천억원을 무이자에 대한 재원확충에 사용하여 이를 0%까지 낮추어 군 복무기간중의 이자 부담 문제도 해결하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학부형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.(학자금 대출 이자를 1% 포인트 인하하는 데는 약 천억 원 정도 든다.)</p>	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
<p>[정책목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간 경계를 넘어선 광역경제권 확보 - 인천공항 수출입 물량의 30%가 영남지역 화물임을 감안할 때 물류 비용 감소 <p>[정책방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해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할 때 신공항의 당위성 제시 <p>김해국제공항 확장은 소음영향권 확대와 군사시설 이전 문제, 접근절차의 어려움 등 효율성이 매우 낮아 남부권 신공항 필요의 타당성이 충분하다. 세계 주요국가</p>	

공항체계 역시 1국1강 공항체계에서 다핵공항체계(Point to Point)로 변환 중임을 감안하면 국제 허브공항 존재여부가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.

- 경제성과 접근성, 환경성을 고려할 때 동남권 신공항이 최적지이며 적자를 낼 것이라는 수도권 우려를 불식시킬 충분한 연구와 분석자료 제시

2025년까지 항공여객과 물류로 인한 남부권 추가 비용이 6천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남부권 지역민들은 편도로만 6시간 이상 낭비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에 14개 국가산업단지, 83개 일반산업단지 등 엄청난 물류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